

내가 왜 떴게?

사랑의 2단 콤보



강남

“오늘 광정은씨도 출연했는데 연애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여자의 심리에 대해 궁금한 게 없냐”고 질문했는데, 강남의 대답이 걸작. “너무 행복해서 여쭙볼 게 없다”라며 좌중의 심장을 강타하더니 뒤이어 “너무 행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광정은에게 물어 2단 콤보를 날렸다. 정말 행복하시군요, 강남씨. 그런데 너무 오글오글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ㅋㅋ

국물까지 다 드셔야죠



아들 윤후가 끓여준 국물 많은 라면

●윤민수, 한강라면 : 가수 윤민수가 그릇에 담긴 라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흔한 야밤의 라면야식 사진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다. 아들 윤후가 아빠를 위해 끓인 라면이란다. 윤민수는 “생애 처음으로 끓여준 아들의 라면 ^^ 내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끓여준 라면”이라는 글도 덧붙였다. 아닌 게 아니라 라면에 물을 너무 많이 부어 라면이 국물 속에 가라앉은 것 같다. 딱 보기에도 맛없게 생겼지만 ‘아빠를 위해 싱겁게 끓인 라면’이라는 아빠도, 라면 끓인 아들도 훈훈하다. 윤후 아버지, 이제 말씀 그만 하시고 라면 드셔야죠. 국물까지 다 드셔야 합니다. OK?

쿨하다 쿨해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와 여름휴가 : 미국 연예매체 US매거진에 따르면 안젤리나 졸리가 이번 여름휴가를 전 남편 브래드 피트와 보낼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졸리는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영화 촬영 중인데 피트가 촬영장을 방문할 것이라다. 피트의 측근들에 따르면 피트에게서는 졸리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같은 감정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 과연 쿨한 커플. 이 정도면 너무 쿨해서 경외감이 들 정도다.

칸에서 나는 소소한 이야기와 기자가 본 ‘봉준호의 세계관’

취조실·하수구·반지하…지하에 꽃힌 봉준호

〈살인의 추억〉

〈괴물〉

〈기생충〉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은 잠시 접어두자. 때로는 편안하게 풀어내는 이야기에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엿보이기도 한다. 5월26일 폐막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기간, 현지에서 두 차례의 공식 기자회견과 한 번의 인터뷰 그리고 국내 취재진과 격 없이 나는 티 미팅을 통해 오간 봉준호 감독의 소소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의 세계를 살짝 살필 수 있는 ‘사소한 입문서’ 줌 되겠다.

●언제부터 ‘지하’에 꽃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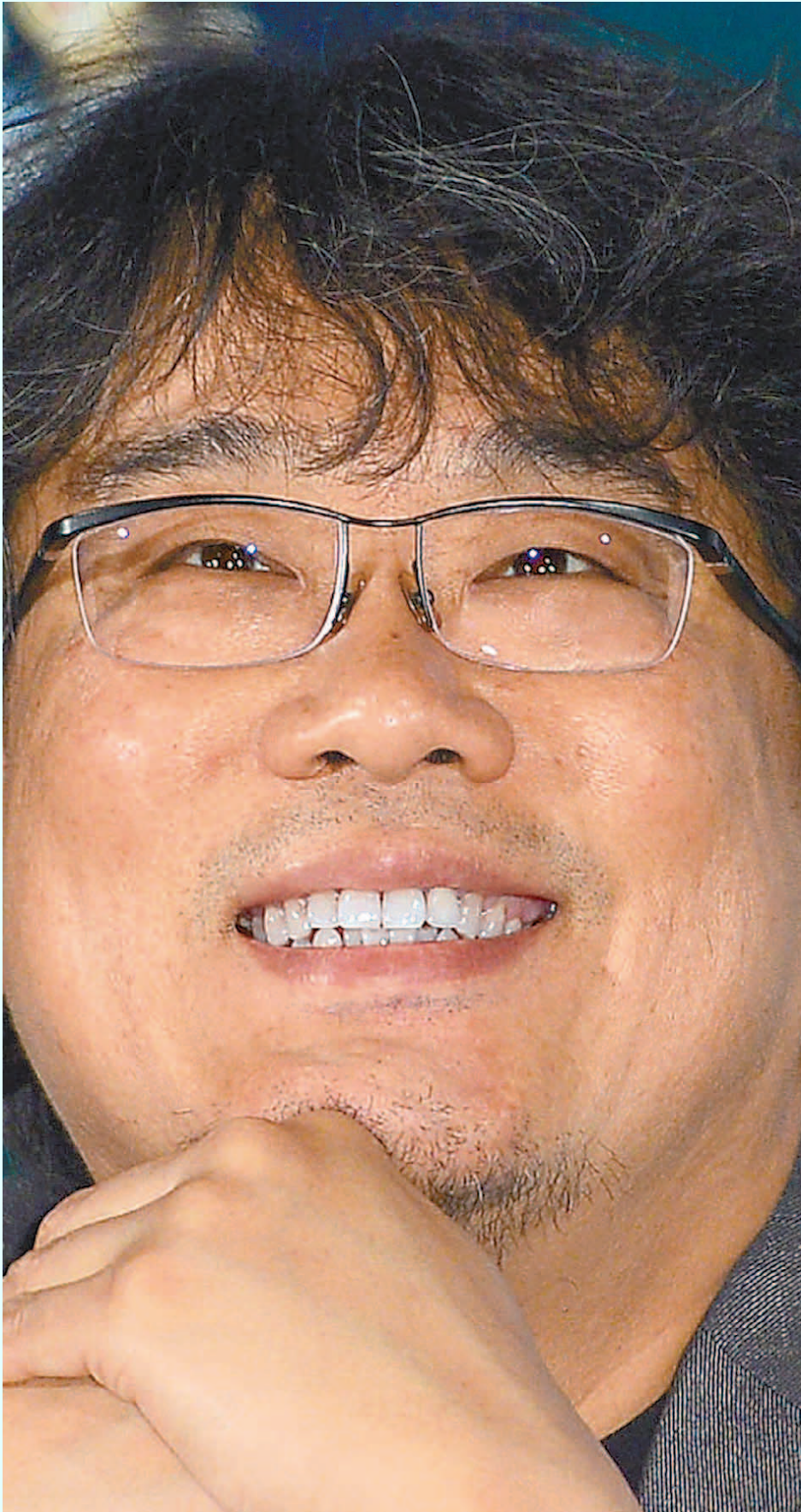
‘기생충’을 통해 새삼 주목받는 키워드는 ‘봉준호와 지하’이다. ‘플란다스의 개’

중학생때 자주 놀던 아파트 지하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자세하게 기억 영화서 ‘봉테일’ 찾는 관객 시선 부담 마더의 ‘남일당’도 잘 타서 쓴 달력

에선 경비원이 사건을 만드는 곳으로, ‘살인의 추억’에선 형사들의 취조실로, ‘괴물’에선 괴물의 은신처인 한강 하수구 지하 공간이 나온다. 이번엔 주인공의 보금자리인 ‘반지하’가 등장한다. 칸에서도 ‘지하’와 관련한 질문을 수차례 받은 봉준호 감독은 “아파트에 살던 중학생 때” 이야기부터 꺼냈다. 농담을 섞어가면서 “친구가 없어 혼자 놀다보니 아파트 지하실을 자주 가곤 했다”고 밝힌 그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아파트 지하 풍경을 정밀하게 묘사한다. “경비원 아저씨가 놔둔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고”, “주민들이 버린 생활 용품들이 쌓여있던”, “그 틈에 경비원 아저씨가 쉬던 매트리스까지 있던 곳”이 그에게 각인된 지하의 이미지다.

●닉네임 ‘봉테일’, 좋아하지 않는 까닭

칸에서 진행된 ‘기생충’ 기자회견에서 한 중국인 기자는 ‘실제로 냄새를 풍기면서 촬영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냄새’는 극 중 갈등의 기폭제로 쓰인다. 감독은 “충격적인 질문”이라고 놀랐지만, 외신 기자마저 이런 걸 묻는 이유는 ‘봉테일’의 국제적인 유명세 때문이다. ‘봉테일’은 2003년 ‘살인의 추억’ 당시 꼼꼼하게 현장을 지휘하는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봉준호 감독과 ‘인간 봉준호’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등이 쏟아지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을 향해 류성희 미술감독이 ‘봉준호’와 ‘디테일’을 섞어 만든 별칭. 지금껏 유효한 수식어이지만, 정작 그는 탐탁지 않아한다. “다들 그런 관심(‘봉테일’)으로 영화를 보니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현장 스태프들도 내가 모든 걸 컨트롤 하는, ‘컨

트롤 악마’로 보는 듯 하다”며 웃었다.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도, 관객은 ‘뭔가 있을 것’이라면서는 부릅뜨고 본다는 하소연과 함께 ‘마더’에 나오는 고물상 화재 장면을 예로 들었다. 불타는 고물상 한 칸에 얼핏 비추는 달력에 적힌 ‘남일

당’이란 단어가 발단이 됐다. ‘남일당’은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과 경찰이 충돌한 건물 이름. 이 점을 눈여겨 본 관객들이 ‘어떤 의도’를 유추했지만 정작 감독은 “그저 잘 탈 것 같아서 쓴 달력”이라고 했다.

●다시 만나고픈 배우…김혜자와 원빈

봉준호 감독은 ‘마더’를 함께 한 김혜자, 원빈과는 꼭 다시 작업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올해 2월 김혜자의 집에 “놀러갔다”는 그는 “‘마더’ 마지막 촬영 날 김혜자 선생님께 꽃다발과 다음 영화의 콘티 한 장을 봉투에 담아 드리면서 함께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10년이 지났다”고 멧쩍어 했다. 물론 작품 구상은 유효하다.

김혜자 선생님께 10년전 콘티 한 장 착하고 겸손한 원빈, 저평가된 배우 적당한 긴장감…카페서 시나리오 써 차기작은 서울 복판서 벌어지는 공포

원빈도 마찬가지. 아무리 칭찬을 건네고, 주변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반응을 전 달해도 쉽게 믿지 않는 원빈의 “착하고 겸손한 성격”을 거론한 감독은 “지금도 그 자체로 훌륭하지만 배우로서 어느 정도 저평가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속내를 조심스레 꺼냈다.

●시나리오는 카페에서, 훗날 은퇴한다면…

봉준호 감독은 카페에서 시나리오를 집필한다. ‘기생충’도 마찬가지. 카페 몇 곳을 정해두고 자리를 옮겨가며 썼다. 그는 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시나리오를 카페에서 쓰는 이유는 주변 소음이 적당한 긴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늘 한 쪽 어깨에 둘러메는, 조금 낡은 갈색 가죽가방이 그의 ‘시나리오 창고’다. 다음 작품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공포”를 계획한 감독은 미국 스튜디오 오와도 작업을 논의 중이다. 쉽잖아 작업하지만 문득 “은퇴”를 떠올릴 때도 있는 모양. 봉준호 감독은 자신에게 ‘직인’을 해주는 인물로 “영화와 무관한 일을 하는 대학친구”를 꼽았다. 그 친구에게 감독은 ‘영화를 그만해야 할 때로 느껴지면, 주저 없이 알려달라’는 주문을 일찌감치 해 놓았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goli1024@donga.com

이정은6, 세계 5위 점프 ‘도쿄행’ 청신호

US여자오픈 우승으로 12계단 상승 내년 6월 랭킹으로 올림픽 출전 결정

2020년 도쿄올림픽을 향한 ‘JEONGEUN LEE6’의 질주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수결이 축포를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 우승으로 장식한 이정은6(23·대방건설)이 4일



이정은

올해 꾸준한 상위권 성적을 이어가면서 서

(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단숨에 5위를 차지했다. 12계단 수직 상승이자 생애 첫 톱10 진입이다. 예상된 결과다. 이정은은 데뷔 시즌인

서히 랭킹을 끌어올렸다. 데뷔전이던 2월 ISPS 한다 위민스 호주오픈에서 공동 10위를 기록했고, 첫 메이저대회였던 4월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6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거두더니 3일 끝난 US여자오픈에서 통쾌한 역전 우승으로 랭킹 1위 고진영(24·하이트진로)과 3위 박성현(26·솔레어)에 이어 한국 선수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이로써 이정은은 도쿄올림픽 출전을 향한 청신호를 켜다. 도쿄행 출전 티켓은 내

년 6월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전반적인 순위가 높은 태극양자들의 경우 높은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어야 출전권을 얻을 수 있다. 도쿄올림픽 출전을 개인적인 소망으로 품은 이정은은조선 이번 수직 상승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고진영이 9주 연속 1위를 지켰다. US여자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유소연(29·메디힐)은 4계단 오른 8위를 기록했고, 박인비(31·KB금융그룹)는 7위에서 10위로 내려앉았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뛰면 필수록 주가 폭등하는 이강인

U-20월드컵서 탁월한 기량 증명 이적·임대 루머 끊임없이 쏟아져

폴란드에서 진행 중인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은 전 세계 유망주들의 쇼 케이스나 다름없다. 미래의 스타를 발굴하려는 명문 클럽들의 관심도 높다.

한국의 간판스타 이강인(18·발렌시아)은



이강인

대회에서는 한국의 주축선수로 활약하면서 자신의 진가를 보란 듯이 뽐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소속팀 발렌시아에서는 출전 자체가 쉽지 않다보니 기량을 펼칠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이강인의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다.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몇몇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도 이강인 영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발렌시아 지역 매체인 수페르데포르테는 3일(한국시간) 이강인의 거취를 놓고 발렌시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발렌시아의 마테우 알레마니 단장,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이 미팅을 통해 이강인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현지에서는 이강인이 레반테로 임대될 것이라며 클럽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한 매체도 있었다. U-20월드컵

의 활약으로 이적 및 임대 루머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FIFA는 4일 홈페이지에 이강인의 성장기를 다룬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는 이강인이 TV프로그램인 ‘날아라 슛돌이’ 출연, 발렌시아 입단, 프리메라리가 데뷔 등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은 1983년 멕시코 대회 때 4위를 차지했다. 그들은 이후 4강에 오르지 못했지만 어린 플레이메이커(이강인)의 추진력과 열정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며 토너먼트에서 이강인의 활약을 기대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